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 O T  
ISSUE

# 원종계 쿼터제 불구 내년도 병아리 생산 잠재력 늘고 있다

## 사육수수 조절로 육계산업 안정화 기해야

### 가격 하락 조짐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 동안 강세를 보여 오던 육계시세가 약세로 돌아서고 있다. 일부 대형 백화점과 마트에서는 닭고기 세일이 이루어지면서 재고정리도 진행되고 있다. 금년초 종계 감축과 원종계 4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종계 수입 쿼터제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향후 육계 경기가 비관적이지 않으나 사육수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금년도 육계가격은 10월까지 대닭기준 kg당 평균 1,848원으로 지난해 연평균 1,670원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10월에는 소닭이 2,500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의 가격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물론 여름 혹서기에 종계의 피해가 생산성 및 사육수수에 영향을 준 부분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금년초 자조금사업을 통해 실시한 50여만수의 종계 감축과 금년 4사들이 합의, 실천에 옮기고 있는 원종계 쿼터제라 할 수 있다.

### 원종계 쿼터제 불구 내년 병아리 생산 잠재력 상승

업계의 장기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종 4개 회사(삼화원종, 한국원종, 하림, 청정원

종)는 업체별 분배를 통해 4만 7,500수(암컷기준)를 감축기로 결의하면서 당초 21만 3,500수를 수입기로 했던 것을 16만 2,000수로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11년 23만 6,600수 보다 무려 32%가 줄어든 수치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2년 장기불황의 영향으로 그해 5월부터 조심스럽게 감축에 들어가던 종계수수가 1년 뒤인 금년 4월부터 평년대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월부터 10월까지 입식된 종계숫자가 이미 지난해 입식되었던 680만수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금년 12월부터 크게 증가하여, 2014년 1월 6만 146천수, 2월 5만 9902천수, 3월 6만 871천수, 4월 6만 4,410천수로 지난해는 물론 과거 평년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종계 쿼터제에도 불구하고 내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적정사육수수 이상의 원종계가 입식되고 있다는 데 있다. 원종계 적정 사육수수는 14만수로 보고 있으며, 금년 쿼터제를 했음에도 16만 2천수는 이보다 높은 수치인 것이다.

사육수수조절이 물론 중요하지만 주시

해야 할 것이 닭고기 수입이다. 이미 우리는 EU, 미국과의 FTA체결에 이어 가장 가까우면서도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주변 여건 변화는 우리 육계산업을 더욱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수입량은 예상외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한·중 FTA 협상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국내 닭고기산업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사육수수 조절에 심혈을

원종계 4개사의 각고의 노력으로 금년에 실시된 쿼터제는 내년도에도 유지가 되어야만 장기적으로 볼때 국내 육계산업이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0년대 초 원종계 쿼터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일부 업체들의 불신으로 인해 실패를 본 사례가 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급불균형을 막기 위한 쿼터제 도입이 논의된바 있으나, 계열사들간의 경쟁과 자체 사육규모 확대로 인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양계협회가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계수급예측사업(중계DB)에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종계사육수수와 생산성을 통해 향후 불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쿼터량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생산감축이 닭고기 가격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나 사육회전수 감소로 농가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정사육수수 예측에 따른 수수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적으로 축사현대화시설 지원금을 받아 육계사를 늘리는 곳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계사업에 있어서도 육계케이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일반 평사보다 사육수수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케이지 도입을 구상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육계산업도 허가제가 실시되고 금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계열화사업법이 발효되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되었던 FTA 협상이 우리 육계산업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장기적인 육계산업의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서 수입닭고기의 수입제한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동시에 국내 수급예측에 따른 사육수수 조절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장 김동진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닭고기 자조금은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자조금관리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양계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국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닭고기 자조금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국가들에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전국적인 참여 프로그램인 닭고기 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나 닭고기 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사)대한양계협회  
이 언 중 종계부화분과위원장

이언중 종계부화분과위원장은 닭과 인연을 맺은 지도 어느덧 39년에 이르렀다고 회상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실습시간에 부화장에서 감별사로부터 부화기술을 배운 것이 계기였다. 당시에는 이제 막 종계보급이 되던 시기였고 이언중 위원장에게는 유망한 직종인 듯 싶어 고교 졸업 후 이언중 위원장은 육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서산 출신인 이언중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서산이 다른 곳에 비해 육계가 빨리 들어왔다고 한다. 1973년 서산 지역에 육계가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에 접어들자 이언중 위원장은 바로 다음 해인 1974년부터 육계에 뛰어들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의 개최시기에 맞춰 이언중 위원장은 획기적인 소비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예상해 천호마니커와 종란계약을 맺고 종란납품을 시작했다. 이후 자신이 직접 부화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1987년부터 위탁부화를 하다가 1995년에는 본격적으로 부화장을 시작해 지금까지 종계 3만 수의 부화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90%의 계열화로 부화장 경영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종계부화인들의 권익보호에 힘써 온 이언중 종계부화분과위원장(19대)은 내년으로 임기가 끝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종계부화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1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종계인 대토론회'에서는 종계농가의 사육주권 및 수평계열화 도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터뷰

## 종계부화 농가들의 사육환경 조성권익보호를 위한 토대 마련할 것

자조금 활성화 위해서는 농가들의 인식변화와 계열사 도계장 거출 필요  
농가협의회 구성과 표준계약서 작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현재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종계부화인들이 스스로 자조금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농가들 사이에 자조금을 납부하는 것이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육계인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종계인들도 자조금을 통해 농가협의회와 표준계약서 등 농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열사에 매여 있다고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그 역할을 자조금이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종계 자조금은 계열사 도계장에서 거출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종계 자조금은 개인 농가가 각자 알아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계부화 농가는 계열사가 농가에게 종계를 주고 나중에 종계가격을 고정가로 계열사가 농가들에게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조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농가들은 계열사에 사육한 종계를 팔아서 번 돈으로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계열사와의 협상을 통해 도계장에서 종계 자조금을 거출하는 명확한 해법이 제시된다면 종계부화 분야의 자조금도 어느 정도는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 현재 종계부화분과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저희 분과위에서는 매월 둘째 주 분과회의를 통해 업계동향과 종계부화 회원농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정부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종계부화업의 경쟁력 제고와 권익보호,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원농가의 권익보호입니다. 현재 종계부화업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농가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계부화업은 90%에 가까운 부화장이 계열화되면서 개인부화장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규모가 되는 부화장은 계열사가 임대하여 경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고 10만~20만수의 부화장은 거의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개인부화장들도 대부분 직접 부화해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조절을 위해 종란을 받아서 납품하는 실정입니다. 따라

서 저희 종계부화분과위에서는 계열사들에게 생산자 보호 및 동반성장의 의미에서 개인부화장의 최소 활동영역인 40%의 종계부화 시장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종계부화업의 계열화사업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농가협의회 구성과 표준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육계 분야에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농가협의회 구성과 표준계약서 작성이 어느 정도는 정착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종계부화 분야에서는 농가협의회와 표준계약서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계열사와 농가 간 불공정거래시에 대처해 나갈 해법이 명료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분과위에서는 회원 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종계 분야의 농가협의회 구성과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산업은 농가가 참여하고 유통과 소비홍보 같은 2·3차 산업을 계열사가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열사들도 이제는 하나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육농가 보호에 힘쓰며, 소비자에 대한 건강한 백색육의 가공유통 및 소비홍보에 주력한다면 닭고기산업의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 남은 임기 동안 종계부화분과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는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관계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종계부화 농가들이 최소한의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따라서 남은 임기 동안 종계부화 분야에서도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조금의 거출 방식에 대해서도 계열사와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겨사씨만한 작은 의자와 믿음만으로도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계부화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권익보호, 복리증진을 위해 종계부화인이 함께 합심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앞으로 종계부화업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 다시 한 번 모두가 부러워하는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종계부화인 모두가 하나로 뽐뽐 뭉쳐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어 차기 종계부화분과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길 기원해 봅니다.

H O T  
ISSUE

0 0 2

# 전국 농민 1만여명 한자리에 모여 한·중 FTA 협상 반대집회 열다!

## 농민단체, 협상 타결 시 농축산물 존폐위기 주장하며 초민감품목 지정 촉구



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도종담협회 등 전국 생산자단체는 도 참여해 한·중 FTA에 대한 강한 반대의 뜻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농민단체들은 이날 인천 평생학습관에서 규탄발언과 결의문 낭독, 상징의식 등을 진행한 후, 협상장소인 인천 웨라톤 호텔 인근 해돋이 공원 광장까지 2.4km를 걸으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또한 각 농민단체 대표자와 실무자로 구성된 한·중 FTA 중단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인천 웨라톤 호텔 앞에서 한·중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가 총 200개의 초민감품목에 농업 분야를 최대한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으나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산업도 고려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농축산업을 살리기 위한 의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값싼 중국 농축산물이 대거 유입되어 한국 농축산업은 존폐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7차에 걸친 한·중 FTA 1단계 협상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했으며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한·중 FTA 2단계 첫 협상인 8차 협상을 진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8차 협상에서 양국 간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에 대해 교환했으며 초민감품목은 다음 9차 협상 때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9차 협상은 내년 초에 진행할 계획이며 초민감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은 공개하기 어려우나 정부에서는 농축수산물을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중 FTA 협상에 대해 농민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18일 인천 평생학습관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약 1만 여명의 농민이 모인 가운데 ‘한·중 FTA 8차협상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사)대한양계

표명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농민단체들은 한·중 FTA 반대를 전체 기조로 농산물 양허 제외, 지역화 반대 등 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쌀 목표가격 현실화, 농산물 생산비 보장 촉구 등 주요 농정현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현 정부의 농업인식 전환을

## 축산단체, 국제곡물가격과 환율 하락에 따라 사료가격 인하 요구

### 농림부, 가격의 투명성 제고위해 배합사료 가격 공개 검토 중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환율 또한 하락함에 따라 축산 농가들의 사료가격 인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11월 국제곡물관측월보에 따르면 10월 곡물 수입단가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사료용 밀, 옥수수, 콩은 286달러/톤, 283달러/톤, 571달러/톤으로 전월대비 각각 2.1%, 4.4%, 3.7% 하락했다. 특히 사료용 옥수수는 올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톤당 6월 326

달러, 7월 314달러, 8월 312달러, 9월 296달러, 10월 283달러를 기록했다.

한 축산단체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농협사료는 사료가격 인상을 추진하며 올해 환율기준을 1,100원대로 설정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9월 2일부터 이후 2개월 동안 환율은 1,100원 대가 무너진 상황이므로 사료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19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1,054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경연은 국제곡물관측월보를 통해 내년 1/4분기 식용 곡물 수입단가는 2.5% 내외로 하락하며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도 0.8% 내외로 하

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하락과 관련하여 (사)대한양계협회,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등은 사료업체가 사료가격을 즉각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사료가격 공개를 통해, 사료가격 형성이 불합리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 동안 사료가격은 농가들의 가격교섭력에 따라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내년부터는 배합사료가격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배합사료가격이 공개되면 사료업체의 경쟁력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배합사료가격이 공개되어 가격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면 사료가격의 하락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국제곡물가격과 환율하락으로 사료업체가 충분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점을 묵인했던 점을 감안하면 사료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축산농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적극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12월12일 대의원 선거 실시

### 선거인 양계부문 축산업자, 무기명 비밀 투표...55개 선출구 80명의 대의원 선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2기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기 대의원 선거를 오는 12월 1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사육두수 조사결과에 의한 양계(육계, 삼계, 종계, 토종닭) 부문 축산업자이며, 선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연기명으로 실시하며 선거권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대리투표는 금지된다. 단 선거구에 등록된 후보자수가 선출구별 대의원수와 동일할 경우에는 무투표당선된다. 선출구는 55개소이며 선출구별 대의원수는 80명(임기 4년)이다.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 닭사육 농가(육계, 삼계, 종계, 토종닭) 및 사육수수 행정통계자료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선거구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양계부문 축산업자로 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후보자 미달 시에는 3일 이내(11월 28일~12월 2일)에 연장 가능하다.

대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출구별로 투표소가 설치될 사무소에서 등록해야 하며,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 제출서류는 ▲ 후보자등록신청서(명함판사진 2장 첨부) ▲ 공명선거 서약서 ▲ 실

명확인증표 사본 ▲ 축산업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력 및 경력 증빙서류이다.

모든 투표가 완료된 후에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종사요원이 주관하여 개표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선인에게 당선 사실을 통지하고 농축산 관련 신문, 축산단체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대의원 당선일 공고는 12월 13일이며, 유효투표 미달로 선거일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선거일 종료 익일로 한다.

H O T  
ISSUE

# 농림부, 부화장에 대한 내년 ND·IB 혼합제제 60억원 지원금 편성

## ND·IB 혼합제제(부화장) 지원으로 질병발생 감소 기대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가축방역사업 계획(안)을 통해 내년 부화장의 예방접종 지원금은 ND·IB혼합제제에 대해 약 60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가축방역사업비 30여억 원에 대비해 약 두 배가량 오른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부화장 백신을 뉴캐슬병 단일 백신만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ND·IB 혼합제제만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전국의 부화장에서 가축전염병 백

신에 대한 ND·IB 혼합제제 사용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한편 (사)대한양계협회는 지난 6월 정부에 부화장에서 ND·IB 혼합제제에 대한 의무접종을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ND의 발생보고는 없으나 최근 IB의 발생률이 높아 양계농가의 IB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ND백신이 IB백신과의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농가에서 IB백신의 사용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대한양계협회는 IB를 예방함에 있어 백신접종을 1일령 부화장 분무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조사 결과에 근거해 부화장에서 1일령에 대해 ND·IB 혼합제제를 의무접종할 것을 요청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비록 의무접종은 아니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에는

부화장에 대해 ND·IB 혼합제제만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부화장에서 ND·IB 혼합제제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양계농가의 질병발생 감소와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가축방역사업 계획(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며, 앞으로 일반농장에도 단계적으로 백신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농업인의 날, 다채로운 행사로 국민들에게 농축업의 중요성 일깨워

토종닭협회, 홍보대사 고명한 씨 관람객에게 토종닭의 우수성 소개해

지난 11월 11일 서울시청광장에서는 '제18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이 한자로 土月土日인 점을 감안해 '흙을 벗 삼아 흙과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농사 철학이념을 담아 정부에서는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농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기념 행사를 열고있다.

이번 행사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가 행사추진위원회 농업인 단체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KBS에서 오전 11시 농업인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방영을 시작으로, 서울시청광장에서 농업·농촌 번영을 기원하는 전통 제사의례 '추수감사제'와 국민 어울림 한마당, 농업·농촌의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을 담은 전시홍보관, 짚 계란꾸러미 만들기 등 각종 행

사가 진행되어 국민에게 농업을 바로 알리고 홍보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사)한국토종닭협회는 한담 홍보관을 설치하고 관람객들에게 토종닭의 새 이름 '한담'에 대해 소개하고 토종닭 혼제를 시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한담 홍보대사인 개그맨 고명한 씨가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한담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뛰어난 맛을 소개하는 퀴즈를 내고 정답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한담홍보대사 고명한 씨는 관람객들에게 토종닭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 중국과 대만 등에서 AI 확산으로 철저한 차단방역 요구돼

AI발생국 여행 농가는 귀국 후 5일간 계사 출입 금지

최근 중국과 대만 등 인접국가에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어 농가들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올해 상반기 고병원성 AI(H7N9형)으로 인해 양계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최근에 다시 중국에서

고병원성 AI(H7N9형)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또한 인접국인 대만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국내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농림축산방역본부는 중국이나 대만 등 인접국에서 AI가 확산됨에 따라 농가들이 철저히 방역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AI 발생국 여행자들은

가금류 농장방문을 자제하고 가금류와의 접촉을 금지하며, AI 발생국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육류를 반입 시에는 공항이나 항구에서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발생국을 여행한 농가들은 귀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의 출입을 삼가고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고 샤워를 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 내에서도 철저한 차단방역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을 소독하고, 매일 1회 이상 예찰하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인도, 수요 증가로 육계생산 2015년까지 2배 증가할 전망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산 육계들

육계 분야 연평균 10% 성장하고 있으나 육계산업 자체는 미성숙

인도 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인도의 육

계 생산이 향후 3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해 약 6백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육계 분야는 인구 증가, 중산층의 확대, 점점 늘어나는 퀵서비스 레스토랑 등으로 인해 닭고기 수요가 15% 이상 증가하면서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육계 산업은 제대로 된 재정 및 마케팅 지원의 부재, 저장고 및 가공 시설의 부족, 계속해서 오르는 공

급 원료 가격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다. 업계 단체에 따르면 인도 남부 지방이 자국 내 육계 생산의 45%를 책임지며, 육계 중심지라고도 알려진 안드라프라데시 지역(인도 남동부에 위치)은 인도 총 육계 생산의 20%를 책임지고 있다. 이 업계 단체의 대변인은 또 인도 내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육계 도살이 수공으로 이루어지며 작은 마을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육

계 가공 처리 관련 개인투자자 및 외국 투자자들에 많은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매 분야에서도 가공 포장된 육계는 젊은 소비자들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신선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큰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인도의 육계산업 여건을 봤을 때 산업이 아직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고 산업화도 미비한 상태이므로, 국내 닭고기 업계가 인도 시장 진출을 모색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여겨진다.

(자료제공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지부탐방 농가를 위해 정부지원책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권오균 칠곡육계지부장

## 닭고기자조금사업을 통한 다양한 소비촉진사업 이루어져야



권오균 경북 칠곡육계지부장

지난 11월 20일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전국 육계인순회교육 현장에서 교육에 참가한 권오균 경북 칠곡육계지부장을 만났다. 17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칠곡육계지부는 회원 모두 계열사육을 하고 있으며, 자조금은 계열사를 통해 납부하고 있다. 목우촌과 거래하는 권오균 지부장은 목우촌에 닭을 출하하면 자조금을 납부겨출한 후 사육비를 정산해주고 있어 원활하게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른 소속회원 역시 계열사에서 의무적으로 거출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납부에 동참하고 있다.

권오균 지부장은 회원농가를 대변해 농가지원사업이나 다양한 관련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농가입장을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날 전국 육계순회교육에 참여해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질문을 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강연자로 참가한 경북도청 축산경영과 김석환 사무관에게 왕겨지원사업 중단을 재고해달라며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호소연하기도 했다.

이후 인터뷰에서 칠곡 육계지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는 사업이 크게 줄고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칠곡지부의 경우는 백신지원사업 외에는 이렇다 할 지원사업이 없는 형편인데다 평소 5회전 사육분량에 대해 백신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2~3회전 사육분량만 지원되고 있다고 하소연한

다. 내년부터는 왕겨 지원사업까지 중단된다고 하니 생산원가 상승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닭고기자조금사업 방향에 대한 질문에 권오균 지부장은 닭고기자조금사업을 통해 농가교육 외에도 소비촉진사업을 통해 많은 부분을 할당했으면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닭고기 소비시장이 커져야 육계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자조금을 통한 농가교육에 주력하고 있지만, 닭고기 소비촉진사업에 많은 부분을 할당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량이 늘고 육계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다른 축종의 경우는 소비자들도 농가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축산물 광고를 접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육계분야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본다.

오전 일찍 시작된 교육에 많은 칠곡지부 회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권오균 지부장은 손수 회원들을 위한 자료를 챙기느라 분주했다. ‘육계를 사육 중인 농가들은 겨울철에 자리를 비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농가에 도움되는 많은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무엇보다 모든 육계농가들이 기다렸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생긴 만큼 회원농가가 계열사 마찰이 생길 경우 농가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농가들에게 홍보하겠다고 권오균 지부장은 밝게 웃는다. 회원농가들을 만나 볼 수는 없었으나 짧은 시간 호탕한 성격의 권오균 지부장과 간단한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 대리 이남희



### 육계질병가이드 / 대장균증 증상 및 대처법

Q. 육계에서 대장균증이 발병했을 때 증상과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A. 병원성 대장균은 포유동물에서는 소화기관에 병소적 친화성이 있으며 설사가 주요 증상인 소화기계 질환입니다.

하지만 가끔에서 병원성 대장균은 호흡기관과 소화기관을 통하여 감염이 가능하고 각종 장기에서 대장균증을 유발하므로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증상에 따라 대장균증의 병명도 여러 가지로 불러집니다.

육계는 사육기간이 짧지만 기간 중 여러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되기도 하고, 특히 늦가을부터 겨울을 지나 초봄까지 사육될 때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사 내 오염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대장균증에 감염된 닭은 원기가 소실되고 졸고 있으며 설사를 하고 관절염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급속한 폐사를 동반하기도 하는데 폐사율은 일정치 않으나 심할 경우 1일 폐사가 1%를 넘기도 합니다. 폐사는 약 2주간에 걸쳐서 나오는데 바이러스성 질병과 복합감염 시 치료가 잘 안됩니다. 부검하였을 때 기낭염으로 기낭에 노란 염

증산물이 발견되고, 흰 섬유소막으로 씌워진 심낭염과 간포막염, 심장과 간문맥의 이상으로 복수증 등의 소견을 보입니다. 이럴 경우 대장균성 패혈증으로 인해 5~20%의 폐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감수성 항생제를 선택하여 치료하여야 합니다. 대장균은 항생제나 항균제의 사용이 워낙 많았던 터라 내성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닭이 육성 중 사용하지 않은 것을 골라서 선택하면 비교적 치료가 쉽습니다.

한편 대장균은 반드시 약물의 투약과 소독, 환기를 개선해야만 치료가 잘 되며, 소독과 환기가 잘 안될 경우 계속해서 재발합니다. 그래서 겨울철과 여름철에 같은 호흡기병 감염 후 병발되는 대장균증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계사 내 다량의 대장균 수를 줄이는 것이 본병의 치료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농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필드 수의사와 상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juyoon@bansuk.biz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공 : 반석 기금진료 연구소〉

### 농협목우촌, 또래오래 통해 다양한 치킨류 판매 중



농협목우촌(대표이사 성병덕) 또래오래는 농협목우촌이 소비자들에게 국내 축산농가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국내 양계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해줌으로써 양계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든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체이다. “즐거움이 있는 곳에 친구를 초대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농협목우촌 또래오래는 현재 다양한 치킨류를 선보이며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오곡 후라이드 치킨’은 신선한 목

우촌 냉장닭고기에 국내산 오곡(현미, 보리, 조, 수수, 콩)이 들어 있어 고소함과 바삭함이 뛰어난 또래오래 대표메뉴이다. ‘갈릭 플러스 치킨’은 건강식품인 마늘을 치킨에 접목시켰으며 한국인이란 누구라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간장소스로 느끼함을 없애 건강과 맛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치킨이다. ‘햇참숯통다리바베큐’는 국내산 목우촌 냉장 닭다리를 오븐에 구워 기름기가 짝 빠진 쫄깃한 맛에 화끈하게 매운 핫소스를 덧발라 매운 맛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에 딱 알맞는 제품이다.

농협목우촌 또래오래는 2003년 1호점을 시작으로 80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8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농협목우촌 또래오래는 지난해 ‘제13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에서 한국의 식문화를 알리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치킨업계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 개인 닭고기자조금 납입 현황

##### 개인 닭고기자조금 납입 현황 2013년 9월

(단위 : 원)

대표자	농장명	납부금액	주 소
서종원	후포농장	300,000 (300,000)	경기 여주군 대신면
이영하	시온농장	150,000 (480,000)	충남 논산시 광석면
김태환		334,830 (334,830)	충남 예산군 고덕면
김영세	영광농장	145,500 (723,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김홍연		1,000,000 (1,000,000)	
배광수	수월농장	90,660 (283,440)	경남 거제시
이옥래	해피농장	198,675 (1,012,002)	전남 곡성군 곽면

※ 9월 자조금 납부금액 총계는 3,924,035원이며, ( )는 자조금 납부금액의 누계입니다.  
※ 명단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02-585-9974)

##### 개인 닭고기자조금 납입 현황 2013년 10월

(단위 : 원)

대표자	농장명	납부금액	주 소
김중범	협촌농장	70,000 (341,700)	경북 상주시 사벌면
최영규	메바위농장	120,000 (465,000)	경기 화성시
김미숙		700,200 (700,200)	
양영생		110,000 (110,000)	
황득규	정현농장	180,000 (330,000)	강원 철원군 갈말읍
김의규		66,000 (294,780)	강원 춘천시 동내면
최훈	민영농장	181,000 (290,000)	경기 연천군 백학면
김종철		9,000 (9,000)	
한병권	한촌농장	714,970 (1,164,970)	전북 남원시 주천면
이상정		62,000 (62,000)	
신영성		7,000,000 (7,000,000)	토종닭
김춘권		2,000,000 (2,000,000)	토종닭
김근호		2,000,000 (2,000,000)	토종닭
배신국		1,000,000 (1,000,000)	토종닭
정학동		1,200,000 (1,200,000)	토종닭
유정연		1,300,000 (1,300,000)	토종닭
심순택		2,000,000 (2,000,000)	토종닭
김진동		1,500,000 (1,500,000)	토종닭
배연금		700,000 (700,000)	토종닭
이순준	노티농장	120,000 (600,000)	충남 논산시 노성면
김영세	영광농장	141,000 (864,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김연수		1,000,000 (1,000,000)	토종닭
임남섭		700,000 (700,000)	토종닭

※ 10월 자조금 납부금액 총계는 36,286,830원이며, ( )는 자조금 납부금액의 누계입니다.  
※ 명단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02-585-9974)

#### 닭고기자조금 사무국 이전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은 지난 11월 15일(금) 사무실을 이전했다. 그 동안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은 축산회관 5층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닭고기자조금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을 위해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다.  
\*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6길 14-20 (성내동 552-4) 3층 302호  
\* Tel : (02) 585-9974  
Fax : (02) 6234-1343

### 제3기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선거지침

#### 가. 사업목적

- 제2기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임기가 오는 2013년 12월 21일(토)에 만료됨에 따라 제3기 대의원을 선출하여 향후 닭고기자조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함

#### 나. 기본방향

##### ■ 적용범위 및 근거

- 닭고기자조금 대의원선거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닭고기자조금대의원선거 규정에 근거한다.

##### ■ 선거인

- 선거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사육두수 조사결과에 의한 양계(육계, 삼계, 종계, 토종닭) 부문 축산업자로 한다.

##### ■ 선거방법

- 선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연기명으로 하며 선거권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대리투표는 금지한다.

##### ■ 선거관리

- 전체 대의원선거관리 : 닭고기자조금대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출구별 대의원선거관리 : 시군선거관리위원회

##### ■ 선출구

- 선출구는 55개소로 하고, 선출구별 대의원수는 80명(임기 4년)

##### ■ 선거일

- 선거일 : 2013년 12월 12일(목)  
- 선거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장소 : 투표소는 축협과 협회지회·지부사무실 중 투표가 편리한 곳에 설치

##### ■ 선거일 연장

- 유효 투표수가 미달된 선출구에 한하여 선거일 익일에 한하여 연장하여 실시하고 미리 공고한다.  
- 선거일에 투표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연장 선거일에 투표하며, 투표함은 유효투표수 미달로 개함하지 아니하였던 투표함을 개함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한다.  
-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대의원정수 3/4이상이 선출되었을 때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 선거 업무협조

- 축산단체(농협중앙회·축협·양계협회·계육협회·토종닭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전반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선거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지도를 받아 처리한다.

### (사)대한양계협회



#### 닭 경제능력검정소 착공식 개최



닭 경제능력검정소 착공식에 참여한 (사)대한양계협회 임원 및 도지회 지부장들

본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해남 닭 경제능력검정소 신축현장에서 착공식

을 개최하였다. 닭 경제능력검정소는 지난 30년간 검정 사업을 통해 닭 품종별 생산능력을 공정하게 검정함으로써 농가에 정보 제공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양

계산업 발전의 역사를 함께 해왔다. 하지만 기존 위치해있던 안성지역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질병방역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터전인 청정지역 땅끝마을 해남으로 확대 이전하게 되었다.

작공식에는 본회 임원 및 도지회 지부장들과 각계 관련기관인들,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

러졌다. 본회 이준동 회장은 축사를 통해 양계산업 발전의 선구적인 역할을 할 닭 경제능력검정소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또한 박철환 해남군수가 참석하여 축사를 전달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닭 경제능력검정소가 되기를 함께 기원하였다.

11월 종계부화분과위원회의 개최



종계부화분과위원회는 종란납품 표준계약서 제작 및 종계농가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계열사 종란납품 거래방식 정착에 따른 종계농가협의회 구성 시급

지난 11월 13일 천안 대명가든에서 11월 종계부화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종계분과위원회의에서는 국제축산박람회 장소에서 개최되었던 종계인대토론회 개최결과와 함께 토론회에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44명의 응답자의 설문을 집계한 결과 계열사와 거래하는 종계농가의 계약조건내용에 대해 많은 농가가 납품단가 개당 275~280원, 사료는 kg당 400원이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종계부화산업 발전을 위한 선행사항에 대해 ▲ 표준계약서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25.4%), ▲ 종계지부 및 농가협의회 활성화(17.8%), 계열업체 과잉생산

제한(16.1%)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종란납품형태로 종계사육방식이 변해감에 따라 농가와 계열사간 거래에 있어 불리한 입

장에 서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4년 닭고기자조금사업에 대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종란납품 표준계약서 제작 사업 등 농가와 계열사와의 종란납품거래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마지막으로 농가협의회 구성에 대한 안전에 대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육용종계와 육용부화장이 빠져있어 개정건의를 통해 삽입키로 하고 종계농가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연중 위원장은 계열사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농가협의회구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의 개최

종계부화분과위원회의는 지난 20일 유성에서 분과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안문제와 2014년 종계분양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2014년 종계분양은 28만수에서 ±2만수로 분양기로 하였다. 이는 전체 수급동향을 파악 논의한 결과

이다. 또한 종계실태조사를 통해 현 종계수를 자세하게 파악하기로 하였으며 우수한 병아리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하였다. 추후에도 토종닭 산업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토종닭 홍보관 마련



토종닭협회는 다양한 홍보행사를 통해 토종닭 소비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객에게 홍보 시식행사를 하여 우리 종자인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또한 토종닭 홍보대사인 방송인 고명환도 참여하여 토종닭 혼제 시식 행사를 함께하여 참관객

전국 으뜸농산물한마당, 농특산물 토종닭 소비·홍보시식 행사, 제18회 농업인의날,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안전농산물 홍보 행사 참가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협회는 시식 행사를 참가해 토종닭 홍보관을 마련했다. 지난 11월 8일 제22회 전국 으뜸농산물한마당, 11월 9~10일 지역 농특산물 전시·홍보·판매전, 11월 11일 제18회 농업인대회, 11월 13~14일 우리 안전농산물 홍보, 11월 22~24일 파주 장단콩축제 등 행사에 참가해 참

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토종닭 '한닭'을 알리고 토종닭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소비자와 함께하는 행사로 승화시켜 토종닭 홍보 및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사였다. 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토종닭 소비 저변을 넓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산단유통분과위 개최



산단유통분과위는 김제 주요 전통시장을 방문해 산단 판매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문했다. 이후 2014년 분과위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결하고 이를 협회 이사회에 건의키로 결의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협회에서는 최근 전통시장에서 LPAI가

지난 11월 5일 전북 김제 소재 한 식당에서 산단유통분과위원회의가 열렸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지난 10월 일본 토종닭 산업 시찰을 다녀온 결과 보고에 이어 산단 시장 합법화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분과위 참석 회원들은 특히 일본의 토종닭 문화가 우리나라 특성과 상이하기 때문에 합법화 추진 과정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

검출되고 야생 철새가 도래하는 등 AI에 대한 충분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분과위는 회의 이후 김제 주요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산단 판매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 위생 현황 등을 점검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행사 개최

추수의 계절을 맞아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행사가 열려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협회는 서울시 성동구 소재 금호동 주민 센터, 거제 만월노인요양원, 진주 장애인복지관, 인천 해피홈보육원 에서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행사를 개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해주었다.

이날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고 토종닭을 기증해 주신데 대해 모인 모든 분

들이 감사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 운동을 계속해서 펼칠 계획이다.

닭고기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행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3저1고 식품인 토종닭고기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사업이다.

제3기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선거 입후보 현황

(2013년 11월 27일 기준)

(2013년 11월 27일 기준)

(2013년 11월 27일 기준)

선거구	지역	시군명	시군별 대의원수	선출구	후보자 등록현황
			대의원수		
1	강원	춘천시	1	춘천철원 축협	여성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2	강원	원주시	1	홍천축협	-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3	경기	고양시	2	김포축협	남상길 김명기
		김포시			
		파주시			
4	경기	연천군	2	파주연천 축협	김정국 임달주
5	경기	가평군	1	가평축협	-
6	경기	양주시	1	포천축협	장용권
		포천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7	경기	양평군	1	양평축협	구본선
8	경기	여주군	1	여주축협	유영도
9	경기	성남시	1	이천축협	김동재
		광주시			
10	경기	이천시	2	용인축협	김진선 최기태
		용인시			
11	경기	수원시	2	안성축협	한경택 최원술
		안성시			
12	경기	평택시	1	평택축협	-
13	경기	화성시	2	수원축협	최길영 최영주
14	경남	산청군	1	합천축협	박수만
		함양군			
		거창군			
15	경남	합천군	1	창녕축협	-
		창원시			
		함안군			
16	경남	창녕군	1	밀양축협	정대현
		김해시			
		밀양시			
	부산	양산시			
		북구			
		금정구			
울산	강서구	1	진주축협	이상정	
	기장군				
	울주군				
17	경남	진주시	1	진주축협	이상정
		사천시			
		거제시			
		통영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선거구	지역	시군명	시군별 대의원수	선출구	후보자 등록현황
			대의원수		
18	경북	안동시	1	안동봉화 축협	홍순중
		영주시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19	경북	상주시	2	상주축협	송영태
		김천시			
		문경시			
		예천군			
20	경북	구미시	2	의성축협	이규복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21	경북	포항시	1	영천축협	구성보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22	대구광역시	동구	1	영천축협	구성보
		북구			
		수성구			
		달성군			
23	전남	영암군	1	영암축협	-
24	전남	강진군	1	강진완도 축협	-
		장흥군			
25	전남	목포시	2	목포무안 신안축협	조건택 이민선
		신안군			
		무안군			
26	전남	함평군	2	함평축협	-
27	전남	영광군	1	영광축협	김병오
		장성군			
28	전남	진도군	1	해남진도 축협	전병현
		해남군			
29	전남	나주시	2	나주축협	김정윤 봉진호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북구				
30	전남	광산구	2	곡성축협	이옥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31	전남	담양군	1	곡성축협	이옥례
		보성군			

선거구	지역	시군명	시군별 대의원수	선출구	후보자 등록현황
			대의원수		
30	전북	군산시	3	익산군산 축협	심순택 김석산
		익산시			
31	전북	전주시	2	완주축협	구광희 김영섭
		김제시			
		완주군			
32	전북	진안군	1	무주진안 장수축협	-
		무주군			
33	전북	장수군	3	순정축협 정읍지점	주상근 이상영 김광삼
		정읍시			
34	전북	순창군	1	순정축협	정윤섭
35	전북	고창군	2	고창부안 축협	오세진
		부안군			
36	전북	임실군	1	임실축협	-
37	전북	남원시	2	남원축협	합병권 강종석
38	충남	충남	2	천안축협	김익겸 이봉재
39	충남	충남	2	공주연기 축협	임교빈 윤금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40	충남	충남	2	당진축협	이흥재 한용현
41	충남	충남	1	아산축협	최윤호
42	충남	충남	1	서산축협	안진식
43	충남	충남	1	홍성축협	-
44	충남	충남	1	예산축협	신현철
45	충남	충남	1	보령축협	-
46	충남	충남	1	청양축협	최창호
47	충남	충남	2	부여축협	방종성 여성원
48	충남	충남	1	서천축협	임준철
49	충남	충남	2	논산계룡 축협	신병철 정운광
50	충북	충주시	1	충주축협	김종선
		제천시			
51	충북	단양군	2	음성축협	이상정 최병하
		음성군			
52	충북	증평군	1	괴산증평 축협	이용균
		청주시			
53	충북	괴산군	2	청주축협	이준동 원용균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54	인천	진천군	1	인천강화 옹진축협	신선호
		종구			
		계양구			
		서구			
55	제주	강화군	1	제주축협	-
		제주시			
		서귀포시			

· 선출구 수 합계 : 55개

\* 선거구별 대의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수 (2013년 11월 27일 현재) : 총 62명